

한국의 대 중국 품목별 교역 동향

1. 한국의 대 중국 교역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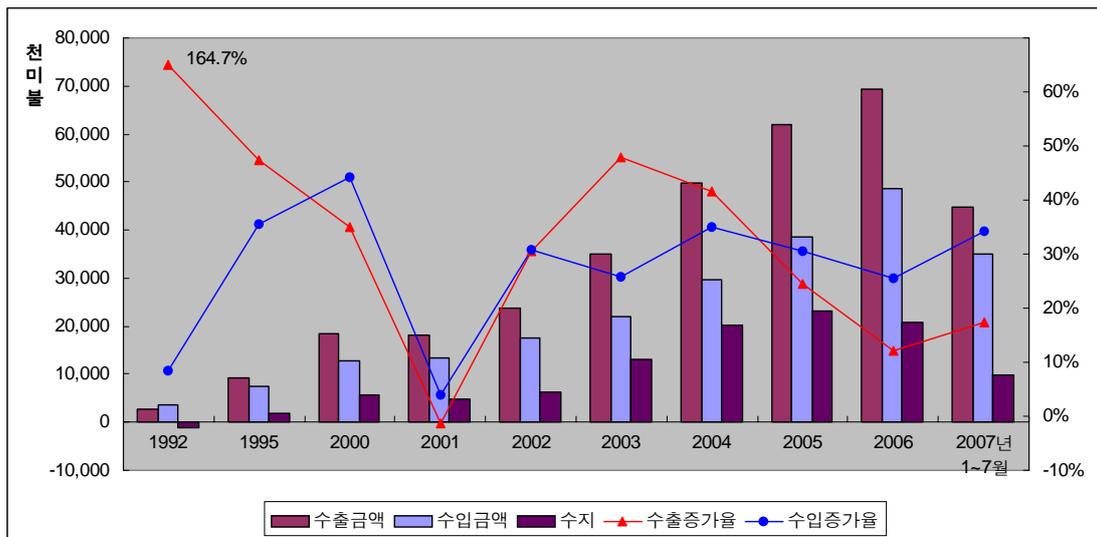
- 한국의 최대 교역국(제1의 수출국, 제2의 수입국)인 중국이 '07년 들어서는 수입규모에서도 일본을 제치고 제1위로 부상
 - '92년 8월 수교 이후 양국간 교역이 급속히 늘어나 '04년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하였음.
 - 교역규모는 '92년 63.7억 달러에서 '06년 1,180.2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음.
 - '03년 미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제1의 수출국이 된 중국은 금년 1~7월 수입실적이 350.9억 달러로 320.9억 달러인 일본을 추월하여 연간 기준으로도 최대 수입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.

- 수출,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
 - 수출액은 '92년 26.5억 달러에서 '06년 694.6억 달러로 26.2배, 수입액은 같은 기간 중 37.2억 달러에서 485.6억 달러로 13.1배 증가하였으나,
 - 수출증가율과 수입증가율은 각각 '04년과 '05년을 기점으로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증가율의 둔화폭('03년 47.8% → '06년 12.2%)이 컸음.
 - 금년 1~7월 수출액과 수입액은 448.3억 달러와 350.9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17.4% 및 34.1% 증가하여 증가세가 다소 회복되었음.

- 대 중국 무역수지는 흑자기조이나 흑자 폭이 '06년에 다소 축소

-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'01년 이후 계속 증가해 오다 '05년부터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며 '06년 감소세로 전환, '07년 1~7월에는 전년동기대비 18.9% 감소한 97.4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
<그림1> 한국의 대 중국 교역 현황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2. 주요 품목별 교역 동향

가. 주요 수출품목 동향

- 과거 주요 수출품이었던 석유류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고 전기기기, 기계류, 유기화학품 등 자본집약적 제품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자리매김
 - '00년까지 7~10위 수출품목이었던 석유류(원피, 가축, 인조장섬유 등)는 현재 수출품 순위가 모두 10위권 이하로 하락하고, 이를 광학기기와 자동차 등 자본재와 동, 알루미늄 등 광물 자원이 대체하였음.
- 전기기기의 비중은 꾸준한 상승세이나 기계류의 비중은 '04년 이후 하락세로 전환

- 전기기기는 '99년 이래 부동의 1위 수출품목으로 자리잡고 있으며, 전체 수출 중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금년 1~7월에는 29.3%를 기록하였음.
 - 기계류는 '00년 이후 2위를 유지하면서 수출금액도 증가하고 있으나, 중국의 기술발전에 따른 자급도 향상 등으로 수출 증가속도가 둔화되면서 수출비중은 '04년부터 하락세로 전환되었음.
- 광학기기의 수출비중 상승과 유기화학품의 수출 호조 지속
- 광학기기는 '02년까지 수출비중이 미미하였으나, '03년 10위권에 진입하여 '05년에는 4위의 수출품목으로 부상하였음.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따라 공정자동화 등에 주로 사용되는 광학·정밀 기기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.
 - 유기화학품은 '02년 이후 꾸준히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 수출비중도 소폭 상승하고 있음.
 - 플라스틱과 광물성연료는 수출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가율이 여타 상위 품목에 미치지 못하여 순위가 5~6위로 하락하고 있음. 자동차는 7~8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철강은 '03년 이후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.
 - 중국의 고도성장 지속에 따른 자원수요 증가로 광물자원인 동과 알루미늄이 '04년과 '06년 각각 10위권에 진입하였음.
- 전기기기를 중심으로 상위 품목 집중도는 심화 추세
- 상위 10개 품목의 집중도는 '00년 79.7%에서 금년 1~7월 88.8%로 9.1%p 상승하였으며, 상위 5개 품목의 집중도는 같은 기간 중 60.2%에서 71.1%로 10.9%p 상승하였음.
 - '00년 대비 수출비중은 전기기기, 기계류, 유기화학품, 광학기기, 자동차 등이 상승하고, 플라스틱, 광물성연료 등은 하락함.
 - 다른 품목들의 비중은 상승 또는 하락 폭이 작았으나 전기기기의 수출비중이 10.7%p('00년 18.6% → '07년 7월 29.3%)나 상승하면서 상위품목의 집중도 심화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.

<표1> 한국의 대 중국 상위 10위 수출품목 및 수출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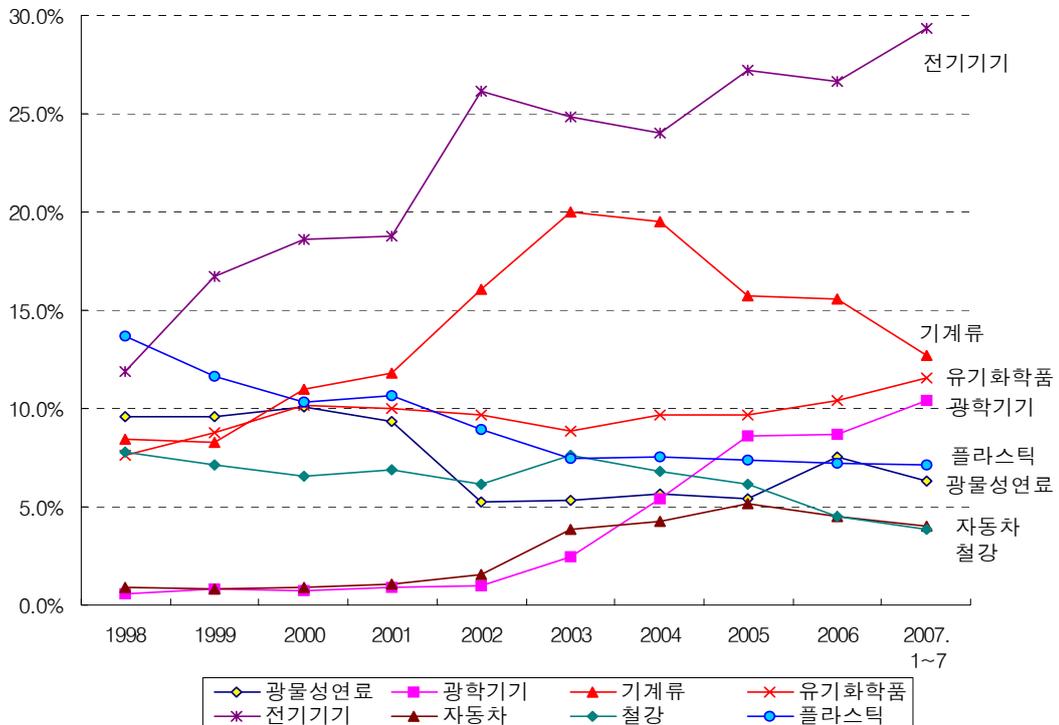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순위	2000		2002		2004		2006		2007. 1~7	
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
1	전기기기	18.6	전기기기	26.2	전기기기	24.0	전기기기	26.7	전기기기	29.3
2	기계류	11.0	기계류	16.1	기계류	19.5	기계류	15.6	기계류	12.7
3	플라스틱	10.3	유기화학품	9.7	유기화학품	9.7	유기화학품	10.4	유기화학품	11.6
4	유기화학품	10.2	플라스틱	8.9	플라스틱	7.5	광학기기	8.7	광학기기	10.4
5	광물성연료	10.1	철강	6.2	철강	6.8	광물성연료	7.5	플라스틱	7.1
6	철강	6.5	광물성연료	5.3	광물성연료	5.6	플라스틱	7.2	광물성연료	6.3
7	원피,가죽	4.1	원피,가죽	2.4	광학기기	5.4	자동차	4.5	자동차	4.0
8	인조장섬유	3.6	인조장섬유	2.3	자동차	4.2	철강	4.5	철강	3.8
9	인조단섬유	2.8	편물	2.0	동	1.5	동	2.6	동	2.6
10	섬유직물	2.5	종이류	1.8	인조장섬유	1.2	알루미늄	1.1	알루미늄	0.9
합계		79.7		81.0		85.5		88.7		88.8

주: 품목은 HS 2단위 기준에 의한 분류임.

자료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<그림2>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비중 변화 추이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□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선박의 대 중국 수출은 미미

-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대 중국 수출에 있어서도 대부분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, 금년 1~7월 중 총수출 2위(비중 13.4%)인 자동차는 중국수출 7위에 머물고 있으며, 4위(비중 7.8%)인 선박은 34위(비중 0.1%)에 불과한 수준임.
- 자동차산업과 조선산업은 중국의 주력 산업으로 수입수요가 크지 않아 같은 기간 중 중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.3% (10위)와 0.1%(42위)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임.

나. 주요 수입품목 동향

□ 전기기기, 기계류, 철강재 등 자본집약적 제품이 상위품목을 점하고 있는 가운데, 곡물·어류 등 농수산물과 섬유류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비중 감소

- '00년까지 10위권에 속해 있던 곡물·어류 등 농수산물과 섬유류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수입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상위 10대 품목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, 대신 알루미늄과 광학기기 등이 새롭게 상위품목에 진입하였음.

□ 전기기기와 기계류 수입의 증가세 지속

- 최대 수입품목인 전기기기의 수입비중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대 중국 수입금액의 1/4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- 기계류의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비중도 '06년까지 상승하였으나, 최근 철강재 수입 급증으로 금년 중 수입비중은 다소 하락하였음.

□ 철강재 수입 최근 급격한 증가

- 철강 수입은 '01년에 감소한 바 있으나 '03년, '04년에 철강재가 격 상승과 함께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. 금년 1~7월에는 전년동기대비 84.2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여 기계류를 제치고

수입품목 2위를 차지하며 대 중국 수입증가율 급등을 주도하였고 철강제품 수입도 크게 증가하여 4위 품목으로 부상함.

- 철강은 중국의 5위 수출품목이나 한국의 대 중국 수입품목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음. 한국은 중국 철강의 최대 수입국으로서 '07년 1~7월 중국의 철강수출액의 18.0%가 한국에 대한 수출임.
- 선박용 후판, 자동차용 강판 등 철강재 수요 증가와 중국산 철강재의 가격경쟁력 강화, 중국의 수출증치세 환급정책 변화에 따른 물량 확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.

□ 광물성연료와 의류의 비중은 점차 하락세

- '02년까지 2위 수입품목이었던 광물성연료는 그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금년 1~7월 중 5위에 머물렀으며, 꾸준히 4~6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류도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.

□ 상위 품목 집중도는 심화 추세

- 상위 10개 품목의 집중도는 '00년 65.9%에서 금년 1~7월 70.0%로 상승하였으며, 상위 5개 품목의 집중도는 같은 기간 49.7%에서 57.3%로 각각 상승하였음.
- '00년 대비 전기기기, 기계류, 철강, 철강제품 등의 비중은 상승하고, 광물성연료, 곡물, 어류 등의 비중은 하락함.
- 특히 철강과 전기기기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광물성연료 등의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중도가 크게 상승하였음.
 - 전기기기 수입비중 : '00년 21.1% → '07년 7월 26.1% (5.0%p ↑)
 - 철강 수입비중 : '00년 5.9% → '07년 7월 13.4% (7.5%p ↑)
 - 광물성연료 수입비중 : '00년 9.0% → '07년 7월 3.4% (5.6%p ↓)

<표2> 한국의 대 중국 상위 10위 수입품목 및 수입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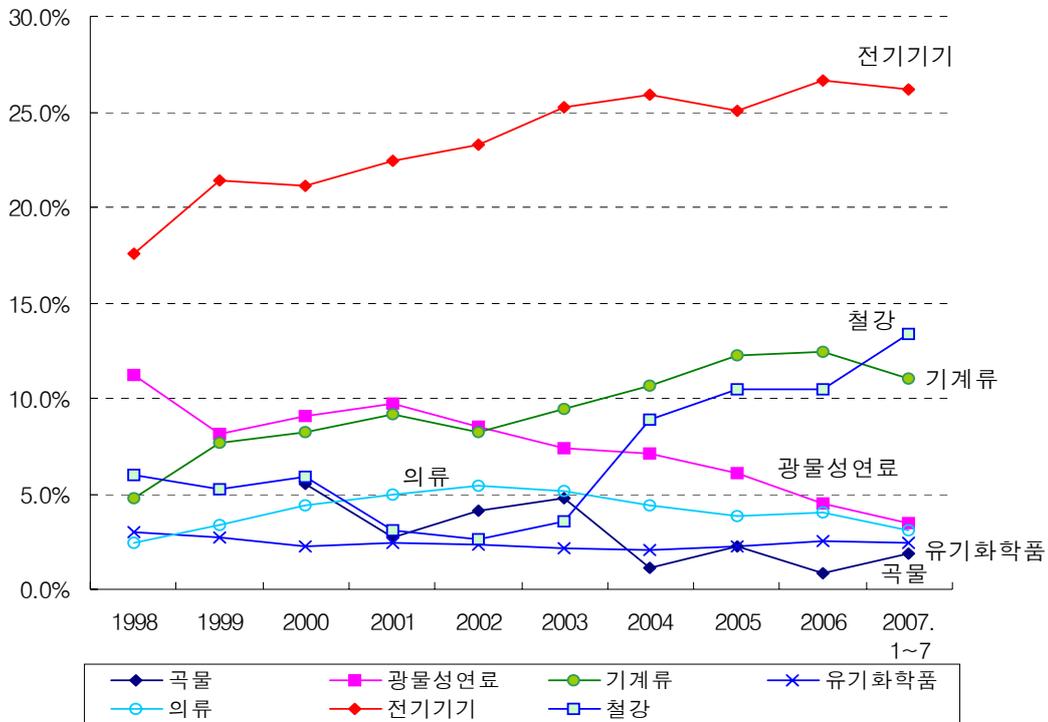
(단위: %)

순위	2000		2002		2004		2006		2007. 1~7	
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	품목	비중
1	전기기기	21.1	전기기기	23.3	전기기기	25.9	전기기기	26.6	전기기기	26.1
2	광물성연료	9.0	광물성연료	8.5	기계류	10.6	기계류	12.4	철강	13.4
3	기계류	8.2	기계류	8.2	철강	8.9	철강	10.5	기계류	11.0
4	철강	5.9	의류	5.4	광물성연료	7.1	광물성연료	4.5	철강제품	3.4
5	곡물	5.5	곡물	4.1	의류	4.4	의류	4.0	광물성연료	3.4
6	의류	4.4	의류(편물)	4.0	알루미늄	3.2	철강제품	2.8	의류	3.1
7	어류	3.7	어류	4.0	어류	2.8	알루미늄	2.7	알루미늄	2.9
8	인조단섬유	3.2	철강	2.6	의류(편물)	2.5	유기화학품	2.5	유기화학품	2.5
9	광학기기	2.4	유기화학품	2.3	광학기기	2.3	광학기기	2.3	광학기기	2.1
10	면	2.4	광학기기	2.1	유기화학품	2.1	가구,조명기기	2.1	가구,조명기기	2.0
합계		65.9		64.5		69.8		70.3		70.0

주: 품목은 HS 2단위 기준에 의한 분류임.

자료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<그림3> 한국의 대 중국 주요 수입품목의 수입비중 변화 추이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(www.kita.net)

3. 시사점

- 특정품목을 중심으로 상위품목에 대한 교역집중도 심화
 - 수출은 전기기기, 수입은 전기기기와 철강을 중심으로 상위품목 집중도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.
 - 관련 산업의 불황이나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으며, 특히 수출은 중국의 비중이 21.5%임을 감안할 때 수출품목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.

- 수출·수입품목 간의 유사성 높아져
 - 한국의 '07년 대 중국 수출품목과 수입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은 상위 5개 품목 중 2개, 상위 10개 품목 중 6개로 나타남.
 - 이는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양국의 교역관계가 과거의 상호보완적 관계에서 점차 경쟁적 관계로, 수직적분업 관계에서 수평적분업 관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.
 - 중국의 기술력과 생산력 향상으로 한국의 대 중국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, 전자통신부품·제품 등의 대 중국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.
 - 기계류도 한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'04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증가하고 있는바, 이는 중국 기계산업의 발전으로 기계류의 자급도가 향상되고 수출도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함.

-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규모 축소 가능성
 - 무역구조의 유사성이 높아지고 중국의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자급도가 향상됨에 따라 한국의 대 중국 수출증가율은 '03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'05년부터는 수입증가율을 밀돌고 있음.
 - '06년 한국의 대 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209억불로 전년대비 10.2% 감소하였고 금년 1~7월 중 97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9.0%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.